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확정

민주 텃밭 호남서 88.69% 압승 어제 마지막 수도권 경선 피날레

D-36 6.3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호남 경선에서 10명 9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호남권 대의원·권리당원의 온라인·ARS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호남의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88.69%를 얻었고, 김경수 후보는 3.9%, 김동연 후보는 7.41%를 얻었다.

이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에 이어 호남 경선에서도 90% 수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수도권과 강원계주지역의 경선 결과에 관계없이 사실

상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호남에서 이 후보가 90% 수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 등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을 갈망하는 호남인들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표를 몰아 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호남 득표에 대한 소의를 밝혔다.

이 후보는 ‘호남 홀대론’에 대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지방이 모두 홀대를 받아왔다”며 “보수 정권의 잘못된 분할 지배 전략 때문에 영남과 호남을 차별했고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고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호남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투브영상 캡처>

남 홀대론에 대한 지원 입장을 애둘러 밝혔다.
호남의 권리당원은 민주당 전체 권

리당원 112만여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거 집중되어 있고, 이날까지의 경선 결과가 수도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과 경선 후보는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득표율 합이 1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이와함께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이 같은 득표율에 고려해 경선룰 변경에 따른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후보 중심의 대선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경선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다”며 “경선이 끝나면 누구든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도록 하나가 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이라고 민주당 승리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도 “특정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표가 몰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도 (이것은) 경고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동연이다. 모든 당원의 민주당,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원팀을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대선출마 고민 중”

“출마요구 피할 수만 없어” 다음주 중 입장 밝힐 듯 출마 시 5월 4일까지 사퇴 전북출신 여당 후보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으로 총리직을 사퇴한 뒤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

만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전북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지난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공직사퇴가 대선일 30일 전이라는 점에서 오는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 중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호남인들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강력히 촉구해왔으나, 그동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었다.

한 대행은 1949년 6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경제관료로 근무해왔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고,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부터 국무총리로 재발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김영목 기자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수 년째 헛바퀴

45억 투입 불구 성과 부진 임대 업체 1년 만 철수 운영 중단에 농민들 허탈 임실군 “5월 재공모 예정”

전북자치도 임실군 운암면에 수입업원을 투입해 조성한 ‘기능성식품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수년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센터를 임대한 W업체가 3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계약을 취소한채 사업을 철수해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관련 농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센터)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산업화를 목표로 2020년, 4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개소했다. 센터는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생



45억을 투입한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수년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전북타임스>

산기술 지원, 관련 산업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임실군이 전국적인 기능성 식품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그러나 개소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설립 당시의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의 부진은 임실군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능성 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지역 농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고 부가가치를 높일 기회가 사라

졌다. 또한, 센터를 활용한 농민 교육이나 생산기술 향상 기회가 부족해 농업인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거나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임실군 한 특용작물 재배 농가는 “국민의 혈세를 45억여원이나 들여 기능성식품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농민들에겐 아무런 혜택도 없었고 이제는 운영조차 되지 않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농민들에게 건조기 처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해줬으면 좋은 소리나 들었을 것”이라고 허탈한 심정을 밝혔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지원센터를 임대한 업체가 중국과의 계약이 미체결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으며 운영을 포기하게 됐다. 5월에는 공고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식품지원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최준호 기자

당신이 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가 담아내는 이야기

전북의시선,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구독신청 282-9600 기사제보 282-9603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행정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현재 JB 지산학협력단 사무실 및 회의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2~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연구 건수나 특허 출원수 등의 수치보다 실질적 변화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성과 분석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문 설치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안내문 설

최형열 의원 JB 지산학 임대료 너무 비싸

김명지 의원 친일잔재 상징물 관리방안은

정중복 의원 청소년 바이오 인재 교육 효과는

염영선 의원 글로벌 대학 인건비 비중 크다

치 후 관리 방안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집행율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급변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한 만큼 실제 집행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군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중복(전주3) 의원은 바이오교육

공동체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그 취지

와 목적이 매우 바람직하나, 청소년들

이 실질적으로 바이오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효과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글로벌대학 사업 운영비 7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된 가운데 신규 채용 필요성도 있으나, 대학에 대한 이

용하면 객관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신규 채용과 파견의 균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전북-강원 학술교류 사업이 지난 본예산에서 한 차례 삭감됐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배경에 대해 물으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당부했다.

▲한정수(익산4) 의원은 글로벌대학 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해 현재 취업과의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초 데이터와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속히 데이터를 구축해 대학의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전북만의 차별성과 강점을 살려 문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내년 수실류 등 79개 품목 지원

'산림소득사업' 신청 접수 시군·산림조합 공동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026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확대에 따른 임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증대가 목표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임산물 △생산분야와 △유통·가공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후계자·독립가·신지식임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등이다.

임산물 생산분야는 '산림작물생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에 대해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임산물 유통·가공분야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임산물 가공산업융합화' 사업에 대해 오는 5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공모 지원대상 품목은 총 79종이다.

79종에는 수실류(14종)·버섯류(8종)·산나물류(12종)·약초류(12종)·약용류(20종)·관상산림식물류(6종)·수목부산물류(1종)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



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 확인 후, 사업 대상지 시군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적정성·타당성 등을 평가한 뒤, 전북도와 산림청·임업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7~9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13개 산림조합, 임업인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공모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도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정중복 도의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중복 의원(전주3)은 지난 24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

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코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봉사관리

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중복 의원은 "이번 개정이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참여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집중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중이염, 폐렴, 균혈증 및 뇌수막염 등 다양한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다.

특히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될 경우, 노인의 치명률은 최대 60%에 이르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

명적일 수 있다.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신고는 전북 21명, 전국 45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전북 14명(66.7%), 전국 187명(56.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정부와 협력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전북환경연 “李 후보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공약 환영

“탄소중립 거점 전환 지속가능 새판짜기” 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전북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소 건설 검토' 공약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측은 논평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생태,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을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토목·건설 중심의 매립속도전, 낡은 개

발 경로에서 벗어나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RE100 실현과 탄소중립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측에 따르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보, 수산업 복원,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효과가 크다. 하지만, 새만금 대안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에게 조력발전이 최선은 아니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타협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효과

는 시화호에서 충분히 검증됐다.

그렇다고 해도, 새만금 사업을 보는 시선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조력발전에 대한 입장이 나뉠 수 있다.

따라서 연합측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계획에서 실행까지 투명하고 치열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전북의 구성원들이 개발이나 보전이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물관리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바람직한 개발 비전과 과제, 연안과 갯벌 생태복원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특히 연합측은 “이제 공은 전북자치도로 넘어왔다.

단독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의 의견이 모아져야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언제까지 새만금을 중앙고위 관료와 공공기관에 맡길 것인가”라며 “어민, 시민사회, 정치권, 전북자치도가 모여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민관협력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근 기자

김관영 지사 “노동, 단순한 경제활동 아닌 생존 기반”

세계노동절 기념…노동계 행정·정치권 협력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지난 25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행사를 통해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향한 전북의 의지”를 다시한번 되새겼다.

도는 이날 지역 노동계·행정·정치권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도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상생·노동문화를 실현해 나간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했다.

행사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원택 국회의원, 서



거석 전북교육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자

를 격려하며 연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주요 행사로는 한국노총기와 산별 회원조합기 입장을 시작으로 모범노동자 표창, 경과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축사에서 “노동은 우리

생계를 책임지는 존엄한 행위로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전주시, 포트홀 6천3백여 곳 정비

봄 해빙기도로정비추진

일평균40개소포트홀정비

9개노선재포장노후도로개선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봄 해빙기를 맞아 포트홀 등 대대적인 도로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전주시는 급증하는 포트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6개 정비팀을 운영해 포트홀 정비를 시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6,310여 개소(완산구 3467개소, 덕진구 2843개소)의 포트홀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도 12개 팀(구정별 자체 2, 단가 4)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 평균 40개소의 포트홀을 지

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도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33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 공사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노선은 △완산구 서원로, 전주천동로, 용리로, 거마평로 등 10개 노선 △덕진구 혁신로, 중동로, 들사평서로, 전주천동로 등 13개 노선으로, 총 23개 노선 중 7개 노선(완산구 고사평3길, 어은터널 교차로, 모악로, 서곡1길, 따바골9길, 전주천동로, 서원로)이 완료되고 잔여 16개 노선도 포장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 정비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봄 해빙기를 맞아 포트홀 등 대대적인 도로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진=전주시>

/정재근 기자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 성과 ‘톡톡’

제니엘 등 3개 업체 참여

현장 면접 35명 채용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5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행사에는 △㈜제니엘(도시락 제조업체) △㈜아이씨엠씨 전주공장 △나래식품(주)(만두 제조업체) 등 3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구인업체들은 사전에 모집한 입사지원자의 현장 면접을 통해 총 35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 앞서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직업상담사들은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 시간과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 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해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4회 개최해 청·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해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장년층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난 25일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5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로 구인 신청력을 채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자연 속 마음치유 프로그램 ‘치유의 정원’ 운영

전북자치도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심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 기반 힐링 프로그램인 ‘치유의 정원’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4주간 △한옥마을 작가정원 △월드컵경기장 작가정원 △건지산 둘레길 △완산 도깨비 숲 등 전주시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를 순회하며 숲과 정원을 배경으로 참여자

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연물을 활용한 오감 자극 체험 △자연소리와 향기에 집중하는 이완 명상 △추억을 소환하는 자연 악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린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는 체험은 참여자들로부터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실제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척도 검사(PHQ-9) 결과 평균점수는 6.4점이었으나 종료 후 3.5점으로 감소해 평균 -2.9점(-48.3%)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치유의 정원은 앞으로도 매월 신청자를 모집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며, 감각을 일깨우는 자연 교

감 활동부터 숲길 산책, 면역력 증진 체험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속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립예술단 남부시장서 찾아가는 국악 공연 실시

전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심상욱)은 전주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 야외무대에서 전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오는 5월 2일 오후 7시에 클래식, 국악, 합창, 남극극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데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민생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 기획됐으며, 전통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국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전통국악에 클래식 요소를 접목한 뉴에이지풍의 ‘프론티어(양방언 작곡)’ △소금의 맑고 청아한 음색이 인상적인 ‘Morning(김신원 작곡)’ 등 다채로운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전통시장의 생생한 현장에서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상인 여러분께는 작지만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전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630m 구간 개방

4월 26~27일·5월 3~6일 시민·관광객에 콘텐츠 제공

전북자치도 전주시 도심 속 봄철 명소로 자리 잡은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이 26일부터 다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됐다.

전주시는 26일 팔복예술공장 인근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진성 한국철도공사 전주역장, 남관우 전주시의장, 시·도의원, 팔복동 주민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주 이팝나무 축제 개막식’을 열고 2주간의 특별한 철길 산책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는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전주시장 및 참여 내빈의 인사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26일부터 27일, 5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된다. 구체적인 개방구간은 금학교에 위치한 건널목이 주 입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린대로에서 신복로까지 630m구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경관조명이 설치된 금학교부터 신복로까지 400m구간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개방시기에만 해당 구간 철길 내

부에서 이팝나무 감상과 촬영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개방기간 및 구간 외 출입은 금지된다.

안전관리 및 동선이동을 위한 안전요원, 신호수 등을 배치하고 자갈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안내판과 야자매트를 설치했으며, 이동이 편리하도록 팔복예술공장과 기린대로 부근에 출입문을 설치했다.

또한, 이팝나무 관람을 하러 온 관광객들은 구렛날길 26번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개방을 위해 빌린 BYC임시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전주시는 이팝나무 철길 개방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일상 속 원표가 돼줄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를 개선하고,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개방한 이팝나무 철길이 전주의 대표적인 봄 명소로 자리 잡았다”면서 “더 풍성한 콘텐츠와 개선된 시설로 다시 문을 연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봄의 낭만을 만끽하실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근 기자

장병익 전주시의원,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마련



장병익 시의원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이 미래 교통 혁신을 선도할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

을 위한 제도

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병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 산업

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조사 △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지원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익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은 전주시의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전통시장 장보기 ‘함께장터’ 동참

체육관부 직원들주축 지역상점서부서원 간담회도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지난 25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진행됐다.

행사는 체육관부 직원들을 주축으로 마련됐다.

체육관부는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

장, 실내체육관,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인라인롤러경기장, 한바탕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다.

부서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함께장터’ 소풍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강을원 체육관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 기관봉서 산악구조훈련 실천형 진행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기린봉 일대에서 119구조대를 중심으로 한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며, 지역 맞춤형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목표로 △위험지역 수색 및 탐색기법 적용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활용 △야간 조난 및 낙석사고 대응 시나리오 훈련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절차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천형으로 진행됐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관내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27건으로, 29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무리한 산행 계획 미수립(44%), 부적

절한 장비 사용(26%), 기상악화 대응 실패(19%) 등 ‘안전부주의’가 전체의 89%를 차지해, 전국 평균(약 7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린봉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한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산악사고 구조 건수가 총 2,015건에 달했으며, 사고부상(46.4%), 조난(27.2%), 질환(2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드론 활용 수색 확대 △응급처치 교육 정례화 △안전시설물 정비 등 실질적 예방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주요 관광지서 리플렛 배포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미디어아트 관광시설로 재탄생한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의 홍보를 위해 전주 주요 대표 관광지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봄철 관광객이 봄비는 한옥마을과 완산꽃동산 등을 찾아 오가는 방문객을 상대로 완산병커의 역사와 특징 등을 알리는 현장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는 지난 25일 한옥마을에 이어 주말(26~27일)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는 완산꽃동산 일원을 찾아 홍보캠페인을 이어갔다.

또한 한옥마을 내 식당, 제과점 등 많은 사람이 찾는 상업시설에도 리플릿을 배포해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완산병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한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을 상대로 완산병커를 소개하는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시청 직원들은 완산병커를 소개하는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하고, 완산병커의 위치와 특징, 역사, 할인 행사 등 각종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한옥마을을 오가는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현장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완산병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내비쳤고, 일부는 리플릿을 받은 직후 관광 일정을 잡는 등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완산병커는 지난 1973년 전시 행정 대피용 목적으로 만들어져 2006년 용도를 잃고 버려진 방공호를 전주시

가 재활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곳으로 ‘폐쇄된 완산병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람객이 탐험한다’는 테마의 미디어아트 문화관광시설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과 방문객에게 완산병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완산병커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 산학연관, 현실적 일자리 해법 모색

일자리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도내 30개 기관 참여 논의
청년 정착·고용환경 개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지난 25일 전주비전대 비전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협의회에서 도내 산·학·연·관 30개 기관 실무자들은 고용정책 실행력과 현장 중심 일자리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올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고용 특구 지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실무협의회에 새롭게 합류하며 기존 28개에서 30개로 확대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지난 25일 전주비전대 비전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지난해 일자리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도는 이번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 차원의 일자리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현재 활용 중인 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 시스템은 3개월 단위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고용 수요 반영에서 유관기관 간의 문제의식 등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독립된 시스템 도입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지역에 정착해 일하고 싶은 청년과 인력을 구하는 기업 모두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들도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재영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일자리 거버넌스가 이제는 현장 중심 실행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한국도정보공사가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LX공사>

LX공사, 환경보전원·수자원공 업무협약

수변시설 토지보상 정확성↑

한국도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사장 윤석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 협력을 통해 수자원 시설 건설과 수변 환경 관리 효율화 지원에 나선다.

LX는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과 ‘지적 공간정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LX 본사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LX는 양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 협력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 협력 강화 △지역 및 공간 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지역 및 공간 정보 분야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교육 협력 △지역 업무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공통 대응 등을 추진한다.

LX는 한국환경보전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변 녹지 조성과 생태 복원 사업, 수자원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자원 건설사업에 관한 토지 경계를 파악하고 보상 물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보상 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X는 최신 지적정보와 드론 영상, ‘디지털 국토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변 시설의 토지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 수자원 건설사업의 효율성 증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실천이 먼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공공기관 담당자 5백여명 대상
제도 변화·실무 절차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25일 도청 공민관에서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북자치도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공동 주최했다.

이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교육에서는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교육을 지난 25일 도청 공민관에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대비 상향(1.1%)되는 등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집중 안내했다. 또 △우선구매 제도 개요 △구매 절차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이 함께 이뤄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과 함께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부스도 병행 운영됐다.

참석자들이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특장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에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1개소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복사용지, 행정봉투 등 사무용품부터 김, 누룽지, 떡 등 다양한 식품류 품목들도 생산하고 있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 UN 아태 지속가능 농업기계화센터 집행이사국 첫 선출

3년간 9개국과 집행활동
농기계화 기술력 국제 인정

한국이 유엔 아·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UN CSAM)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에 의해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란,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에 설립 62개 회원국 참여 아태지역 경제, 사회 협력 및 개발 중심적 역할 수행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한국을 대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임기 동안



농촌진흥청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사진=농진청>

안 9개집행이사국과 함께 공식 활동을 펼치게 됐다.

집행이사국(9개국): 한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중국(당연직).

세부 내용으로는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지원 △재정 현황 점검 △추진 사업 평가 및 자문 △국제기구, 지역기관, 비정부 조직,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중요 임

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선출이 우리나라가 아·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 회원국으로서 지역 공개 토론회(포럼) 및 연례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업기계화와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높은 농업기계화 수준과 디지털 농업기술 강국으로써의 역할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덧붙혔다.

이를 기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 농업기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후 수출시장 확대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집행이사국 활동 중 하나로 회원국 대상 훈련 프로그램 개설, 우리나라 농기계 기술 개발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뉴텍, 스마트축산 협력체계 구축 ‘맞손’

축산 혁신 상호협력 협약
AI기반 무인 자동 급이 시연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주식회사 뉴텍(대표이사 김명호, 유영우)과 스마트축산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식회사 뉴텍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축산업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주식회사 뉴텍이 개발·보급 중인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시연



전주상공회의소는 주식회사 뉴텍과 스마트축산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에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시스템으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로 앞

려져 있다.

주식회사 뉴텍의 김명호 대표이사는 “스마트 축산모델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며 “전주상의 회원기업으로서 축산 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협력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며, 축산 자동화 기술 보급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생 발전을 모색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미주한인상의, 새만금 투자 협력

상생협력 업무 협약
임주기업 美 시장 진출 지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5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1980년 뉴욕에서 창립된 미주 한인상공인들의 모임으로, 미국 내 80여 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회원으로 한 한인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단체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

하고, 임주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 확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 전략산업 및 양국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임주기업들을 포함한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해외기업과 유턴기업들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대병원과 지역특화 메디푸드 체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이승욱, 이하 임상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맞춤형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상용화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메디푸드 공동 연구개발, 인체적용

시험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등의 폭넓은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대임상지원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및 연구개발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임상시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 검증과 인재 양성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중산신협 상반기 조합원 교육 90여명 참여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라양노)은 신협중앙연수원(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2025년 상반기 조합원 교육’을 지난 25일 진행했다.

신협은 조합원 교육을 지난 202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조합원 교육을 통해 신협 주인의식 함양, 임직원들과의 소통시간 확보 등에 따른 유대관계가 더욱 견고해졌다.

행사에는 라양노 이사장과 임·직원 약 9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오전 신협중앙연수원 견학을 시작으로 신협 역사와 전 세계·국내신협의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이 전달됐다.

이후 이상윤 연수원장 신협철학 교육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주제 강의가 펼쳐졌다. 이로 인해 본질적 가

치 실감과 자부심을 가졌다.

오후 국내 첫 도심형 숙박업 국립세종수목원(지난 21년 10월 개원)을 방문해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사무실보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개원 당시 면적 65ha에 식물 2,834만 종, 172만 본이 식재돼 있으며, 사계절전시온실·지중해온실·열대온실·특별전시온실을 운영한다.

전주중산신협은 3월 말 기준 자산 4,200억 원, 조합원 수 약 16,000명, 순자본 비율 7.05%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지녔으며, 2024년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경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박차

추진대상학교담당자연수 5년간 55개교씩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 '2025년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추진학교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올해 56개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을 시작으로 5년간 55개교씩 276개 학교도서관을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수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조성 선정학교 담당자들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사를 위한 평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면 문해력 키우기' △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혁신 이해' 등이었다. 실제 공간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 활용, 토론·협업, 커뮤니티 공간 등 학교 급·학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가졌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구성 방안, 학생 참여 중심의 국내·외 공간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해 공

간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형 학교도서관은 학교 독서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정보 활용, 토론·협업,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며 "연수를 통해 담당자들이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조선왕조 개국 공신 건립한 한벽당 재조명 된다

29일~7월 20일까지 한옥마을역사관 기획전시실

조선왕조 개국을 도운 공신들이 건립한 한벽당.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벽옥한류 한류(碧玉寒流) 한벽당(寒碧堂) 특별전'이 오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역사관에서 개최된다. 한벽당은 조선왕조의 개국을 도운 공신(功臣)인 월당(月塘) 최담이 태종(太宗) 4년(1404)에 건립한 별장(別莊)으로 승암산 기슭인 발산(鉢山)을 깎아서 터를 만들고 세운 누각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완산지'와 최담 유허비(崔震遺墟碑)의 비문을 통해 한벽당의 조성 배경과 쓰임을 이해하고, 최남선의 '심춘순례', '풍패집록' 등에 남겨진 한벽당의 모습이 소개된다. 또 한벽당과 요월대 현판, 한벽당 중수기, '심매경' 암각화 이미지 등을 통해 전주 시민객들의 사랑을 받은 한벽당의 문화적 가치를 찾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특별전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창암 이삼만 이야기와 함께 하는 부채 만들기'가 진행된다. 특별전은 전주한옥마을역사관 휴무일

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임청진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이번 '벽옥한류(碧玉寒流) 한벽당(寒碧堂) 특별전'을 통해 전주팔경의 하나인 한벽당을 무대로 활동했던 지역 문인과 서예가, 또한 한벽당을 지은 월당 최담 가문과 전주한옥마을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함임을 방문객과 지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대,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성장·올바른 식습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 전주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형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 및 급식 및 푸드테크 등의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재료 탐험 및 미각, 영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개인 체질 개선과 영양 교육을 위한 교육키트를 제작해 교육한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미래식품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전효진 교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4416만 원 기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동참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식'을 갖고, 성금 4416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

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이다. 기탁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식은 성금 전달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병원·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 지원 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학교 급식종사자 대상으로 폐암 검진 지원 사업 활성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전북도교육청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절차 간소화를 통해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폐암 검진 활성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 유정기 부교육감을 포함해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

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고창종합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검진 기관은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 검진 지원 사업에 대해 전북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폐암 검진(저선량 흉부CT 촬영) 단계 및 검진 프로세스의 간소화, 이상소견자의 추가검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철 병원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교육청, 교원 에듀테크 직무연수 강좌

내달 9일까지 희망 교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2025년 교원 에듀테크 직무연수 강좌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모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의 실천적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수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모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 수업 과정안 등을 작성해 내달 9일까지 공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강좌 주제는 △AI 및 AIDT(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스마트기기 및 플랫폼 활용 △에듀테크 도구(앱) 활용 등이다. 현장 교원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제안된 강좌는 별도의 사전 심사 없이 '강좌 풀(Pool)'로 등록하고, 공모된 강좌는 연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춰 편성·운영될 예정이다. 우수 강좌는 차년도 핵심 프로그램으로 확대 편성된다. 모든 공모 교원에게는 교수·학습 연구용 희망 도서를 지원하며, 선정된 교원은 직무연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2025년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

신규 임원·대의원 선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지난 2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2025년도 전주시학부모회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

명, 상임고문 1명 등 임원 6명과 대의원 14명이 선출됐으며, 임원 및 대의원은 향후 학부모회협의회회의의 적극적인 운영과 상호 소통 및 협력을 다짐했다. 김정기 교육장은 "초등학교 독서교육, 중학교 학력 향상,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도 등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전주교육이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학부모회협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말했다. /최성민 기자

에너지 절약 방법

왜 에너지를 절약 해야 할까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 지구온난화 :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

01 안쓰는 콘센트는 뽑아요

02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춰요

03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 해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청 로비서 우수제품 한자리에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제품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을 연다.

시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일간 시청 1층 로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궁면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입주기업 제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지난해 푸드폴리스마켓 우수브랜드인 ‘카페예’와 △답꽃 △프롬 바이오 등의 제품을 비롯해, 고령친화우수식품(그레놀라·죽 등), 건강기능식품(보스 웰리아·숙취해소제 등)이 특별 할인가로 판매된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기업 간 협업으로 탄생한 공동브랜드 상품(한우불고기, 참깨바움쿠헤ن, 김치콤바차 등)도 함께 전시·판매돼 눈길을 끌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과수 저온 피해 예방 맞춤형 생육관리 지원

정읍시가 봄철 이상저온에 대응해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화와 안정적인 열매 맺힘을 위해 현장기술지도와 생육관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오는 5월 15일까지를 ‘과수 저온 피해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사과·배·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 시기별 생육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온 피해 예방 기술, 인공수분 요령, 생육 단계별 관리법 등 맞춤형 현장지도를 병행하며 과수 생산 안정화에 나섰다.

정읍 지역은 올해 3월 말과 4월 초 강풍과 기온 급강하가 겹치며 일부 배 농가에서 꽃눈이 검게 변하는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피해 수준에 따른 적정 작과 관리법을 농가에 안내하고, 수확량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펼치고 있다.

사과와 복숭아 재배지의 경우 현재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기온 급강하 가능성에 대비해 인공수분 철저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시민과 함께 꽃바람정원 활짝 피우다

익산시 신흥공원 꽃바람정원이 봄의 싱그러움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25일 신흥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꽃바람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꽃바람정원 만들기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원 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시민들이 정원을 가꾸며 도심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유치원생 등 15팀 21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2,000㎡ 규모의 정원에 델란포디움, 백일홍, 안젤로니아 등 계절꽃 6종 3만 본을 심으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이와 함께 마가떡, 메리골드 등 익산시가 조성한 다양한 계절꽃 단지와 사진촬영 장소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5월 2일~21일까지 신청 19~34세 청년 자립 지원

군산시가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본인 적립금 납입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

하 청년은 매달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은 매달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2,013원)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15세~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7종 보험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

예기치 못한 사고·위험 대비 보험 보장 미리 확인·신속 청구

정읍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총 7종에 달하는 다양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망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상해, 감염병,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는 물론,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

만원까지 보장한다.

시민자전거보험 역시 정읍시민이라면 자동차로 가입된다. 자전거 이용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에서 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있다.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농염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사고에 대비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20여 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이며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제3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

면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된다.

군북무청년 상해보험은 정읍에 주소를 둔 청년이 군 북부 중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보장하는 제도로, 훈련소는 물론 외출이나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정읍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책임보험도 운영 중이다. 근무 중이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와 장해 보상을 지원, 북부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을 위한 상해보험도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각 보험의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함라산 수국 1만 4천본 ‘빼곡’

27년까지 치유·경관 특화숲 조성

익산시 함라산이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숲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는 ‘국립 익산 치유의숲’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함라산 경관특화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 봄 수국 1만 4000본을 임도변 주요 구간에 집중 식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식재로 초여름이 되면 푸른 숲길을 따라 형형색색 수국이 만개하는 ‘수국 꽃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계절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끼며 걷는 힐링 산책을 경험할 수 있다.

‘함라산 경관특화숲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ha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산림경관 프로젝트다.

계절꽃과 단풍 등 다양한 수종을 도입해, 기존 단조로운 소나무 위주의 임



익산시는 ‘국립 익산 치유의숲’ 일원에서 올 봄 수국 1만 4000본을 임도변 주요 구간에 집중 식재했다 <사진=익산시>

도 숲길을 보다 풍성하고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단풍나무, 애기동백나무 등을 심으며 계절 변화가 느껴지는 숲길을 조성했고, 올해는 수국 식재를 통해 여름철 경관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

다. 함라산은 ‘국립 익산 치유의숲’과 야생차 군락지, 수변 생태공간 등이 인접해 있어, 향후 숲과 치유 관광을 융합한 고품격 산림휴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전북시민대학 익산캠퍼스 운영 본격

원광대·원광보건대·폴리텍 협약

익산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나선다.

익산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3개 대학교와 ‘전북시민대학 익산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백보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이 참석해 익산형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전북시민대학은 고등교육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확산 사업이다. 익산시는 올해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도비 7,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3개 대학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북시민대



학 익산캠퍼스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프로그램은 15개로 △익산시 3개 강좌 △원광대 4개 강좌 △원광보건대 3개 강좌 △폴리텍 익산캠퍼스 5개 강좌가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성태 총장은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 기반을 갖춘 대학이 평생학습도시 익산시와 함께 뜻깊은 사업을 함께하

게 돼 기쁘다”고 전했고, 백준흠 총장은 “익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백보현 학장은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지역대학과 함께 익산형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제작

디자인·상표 출원 진행 지역수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갑오징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갑토리’(이하 ‘갑토리’)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시는 캐릭터 ‘갑토리’의 친근함을 통해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갑토리’ 디자인·상표 출원도 진행했다. 이는 해당 캐릭터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기 위해서다.

군산 갑오징어 위판량은 전국 대



비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리당 단가도 일반 수산물의 평균 2.84배로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시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인 ‘갑오징어’ 자원증대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어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갑토리’ 활용 홍보물 제작 △각종 축제 등에 홍보 및 판매 부스 운영 지속 등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제10기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전북 굿네이버스와 협업

군산시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제10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1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의원 48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발대식 개최와 함께 협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선 ▲위촉장 수여 ▲의원 선서 ▲군산시장 인사 말씀 ▲기념 촬영이 이루어진 데 이어, 2부 행사로 ▲연간 활동 일정을 안내하고 의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활동이 진행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군산시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실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한 해 동안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업하여 △야동 권리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특강 △선진지 견학 △의제 발굴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발의한 정책건의안을 심의·의결하는 본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전동휠체어 무상점검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구간을 맞아 이동보조기기 무상점검을 실시하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나섰다.

복지관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상점검·경정비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배터리 상태,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부품, 동작 상태 등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작업은 전액 무료로 지원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장애인에 참여해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이상 유무를 점검받았고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수리를 미루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업 인력난 해소

군산시는 25일 농업인회관 1층 강당에서 대야농협 주관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각 농협 관계자, 농업인단체, 계절근로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에 입국한 19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난 2월 베트남 현지 면접

을 통해 선발된 인원으로 대야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르면 28일부터 5개월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까마우성 타이빈현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 입국은 해당 협약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전주 ‘원푸드’ 축제 동시 개막

남원 특산물 백향과 활용 총30개부스 마켓 운영 지역브랜드 상생 협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제95회 춘향제를 맞이해 관광객들과 소비자들에게 지역 특산물 ‘백향과(Passion Fruit)’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원시와 전주시간 지역 상생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One Food Festival’ 축제를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과 전주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95회 춘향제와 연계해 남원 월곡광장 승월고 아래와 롯데백화점 전주점 옥상정원(9층)에서 동시 개최되며, 지역농특산물, 특히 남원의 대표 특산물 “백향과”를 활용한 가공 시제품을 중심으로 총 30개부스(남원 17개, 전주13)에서 백향이 캐릭터 굿즈상품, 가공상품 전시 홍보·체험·시식 및 판매 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 마켓존에서는 백향과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신제품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백향과맛 애사비, △백



남원시는 지역 특산물 백향과를 알리고 전주와 상생협력 실현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원푸드 페스티벌을 남원·전주서 동시 개최한다. <사진=남원시>

향과소스 닭가슴살, △백향과 파이, △백향과 샌드 등이 있으며,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맛보며 제품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체험존은 백향과를 활용한 요리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백향과 쿠킹클래스”와 페이스 페인팅(전주)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남원 지역 가공상품 브랜드 “One Food”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된다. 700만 회원을 보유한 L포인트 앱(App) 내 홍보 콘텐츠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전주점 외벽 전면광고를 활용한 대형 홍보물 설치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마케팅 전략이 전개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원푸드” 가공상품을 특별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판촉 행사도 함께 열려 실속 있는 쇼핑 기회도 제공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공무원 산불 전문진화대 발대

군의회 진화대원 참여 눈길 체계적 산불 대응체계 구축

순창군이 국가재난 수준의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무원 진화대 교육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직접 산불 현장을 지휘하면서 진화대원의 안전과 체계적인 산불 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진화대 양성이 필요하다는 최영일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발대식에는 손종석 순창군 의회의장을 비롯한 순창군의회 의원들도 진화대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군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전체가 산불 대응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공무원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지휘 혼선과 인력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00



순창군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를 새롭게 구성하고,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교육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명이 2개 조 10개 팀으로 편성됐다. 공무원 전문진화대는 주불 진화 이후 잔불 정리와 후속 조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진화장비를 갖추고 운영된다.

지휘체계는 △본부장 최영일 군수 △차장 염기남 부군수 △통제관 국장 △현장지휘 본부장 산림공원과장 △현장 진화대장 산림보호팀장 등이 담당하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일사

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령화된 현대사회에서 잔불 정리, 방화선 구축 등 산불 진화작업은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산불 진화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95회 춘향제에서 남원국악예고가 준비한 창작 뮤지컬 ‘춘향’이 1일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에 오른다. <사진=남원시>

이팔청춘들의 MZ감성 춘향극 온다

남원국악예고 ‘춘향’ 뮤지컬 춘향제 야외공연 무대 올라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축제인 남원 춘향제는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관한루원 및 요전면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 오는 5월 1일 오후 2시·5시(2회 공연),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에서 남원국악예고가 창작 뮤지컬 ‘춘향’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창작 뮤지컬 ‘춘향’은 고전소설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단순한 고전 재현이 아닌 오늘날 청소년의 시선에서 인물 간의 갈등과 감정을 더욱 섬세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음악과 연기, 무용이 결합한 종합예술로 구성돼 있으며, 무대부터 의상, 안무까지 세밀한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연은 남원국악예고 모든 학생이 전공 역량을 살려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인생의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순창군노인대학 초청 ‘행복한 삶’ 특강 진행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4일 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노인대학 특강에 특별 강사로 참여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정성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순창군 노인대학(학장 강병문)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순창군 노인대학(학장 강병문)은 지난 3월 20일 개강 이후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총 30주간 진행

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후 삶의 활력을 더해주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의는 노인 건강관리, 여가활동, 특강, 일반상식, 지역탐방, 기업체 견학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특별 강사로 나선 최영일 군수는 “어르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며,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10만 군민 하나로” 완주군민의 날 준비 착착

행사추진위원회 열고 위촉식 인구 10만 달성 선포식 계획

완주군이 오는 6월 14일 개최될 제6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제6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열고, 위촉직 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김대호 농협 완주군지부장이, 부위원장은 이선일 완주군 새마을부녀회장, 사무국장에는 이재정 완주문화재단 공간운영국장이 선출됐다.

완주군의회, 지역 주차민원 해결 현장 방문 활동

고산 파크골프장·화산 꽃동산 주민 애로 직접 방문 청취

완주군의회가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 고산면과 화산면을 찾은 군의회 김재현 부의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먼저 고산 만경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완공 시 예상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논의했다.

특히 인근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찾

는 이용객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방문이 겹칠 경우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산면 꽃동산을 찾은 김 부의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주민들과 주차공간 부족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의장은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민원이 된다”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전문가 컨설팅 받아 재난대응훈련 사전 준비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5월 27일 실시되는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훈련 준비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자원봉사센터, 방재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극한 호우를 동반한 태풍(풍수해)으로 인한 팔덕제 저수지 붕괴와 경천 주변 침수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으로, 주민 대피와 인명 구조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훈련의 목표와 중점사항, 관련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하고, 훈련이 실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사항을 전반적으로 공유했다. 또한 훈련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대응기구를 가동하고 실시간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해 지원기관의 실질 대응능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상이후로 인해 재난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출된 주요 의견과 제언 사항은 오는 5월 12일 예정된 2차 전문가 컨설팅에서 보완·반영해 훈련 준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민원 작성 방법 QR로 12종 서식 작성 예시 제공

남원시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자주 쓰는 민원서식 12종 작성 예시를 ‘QR코드(정보무늬)’로 제작해 제공한다.

이번 편의시책은 그동안 민원서류 작성시 작성란을 문의하거나 잘못 기입된 서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정확한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를 위해 도입했다.

민원창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 스캔하면 민원신청서 작성 예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민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서식 작성 예시는 가족관계(출생·사망·혼인·이혼), 주민등록(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인감(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여권(여권 발급 신청서) 등 주요 민원서식 12종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공간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읍면동 민원실,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쓰기 쉬운 민원서식 작성 예시를 통해 보다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군청사 보안 점검 불법 촬영·도청 장비 탐지

완주군이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청사 내 업무공간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비를 탐지·확인하는 대대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이달 초부터 2주간 진행된 점검은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군민 불안감 해소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완주군 청사·의회 및 읍면 사무소(총 15개소)의 내부 화장실 및 업무공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외선·전자파 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기기 및 도감청 장비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도청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 도감청 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춘향제 통해 생활인구 확대 모색

‘남원누리시민제도’ 홍보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하는 제95회 춘향제를 올리는 ‘누리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인구 유입과 관계인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누리시민제도’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남원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시민 제도다.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받으면 공공시설(8개소) 무료 또는 감면 입장, 누리시민 가맹점 할인(78개소), 지역 행사 및 축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춘향제에는 축제 현장에서 직접 누리시민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4월 30일 개관하는 ‘달빛정원 피오리움’ 입장료 50% 할인,△춘향무도회 한복 체험부스 체험료 50% 할인,

△농특산물 시식 쿠폰 제공,△현장 가입자 다양한 기념품 제공과 함께 누리시민을 위한 맞춤형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를 통해, 일시적 방문 → 관계 형성 → 반복 방문 → 정주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누리시민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춘향제 방문 이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5월 가정의 달 맞이 가족 방문객 숲체험 프로그램

장수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릉·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숲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자연 친화적 힐링 콘텐츠로 마련됐다.

외릉자연휴양림에서는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치유의 숲’에서 숲길 걷기 명상, 아로마 테라피, 숲속 요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연놀이와 감성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방화동 자연휴양림 야외에서는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 등 숲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적·놀이적 맞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배움과 재미를 부모에게는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지인 외릉·방화동 자연휴양림에 오셔서 가족 모두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문화의집서 어린이날 기념 엘리야 영양교육 뮤지컬 선행

진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어린이날을 기념한 특별한 영양교육 뮤지컬을 선보인다. 내달 3일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엘리아와 함께하는 골고루 먹기大作전’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관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골고루 먹기’와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하고자 한다. 지난 2024년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진행한 특화사업인 ‘어린이 식생활데이터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들의 ‘골고루 먹기’ 실천 부족과 초등학생의 ‘고열탕·고지방·당류 섭취’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뮤지컬은 불량 음식을 조장하는 악당 ‘오그레와 르사’와 이를 물리치기 위해 나서는 정의의 마법사 ‘엘리아와 올리버’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다섯 가지 색깔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이번 뮤지컬 티켓은 무료로 배부되며, 티켓 수령은 어린이날 칸잔치 행사 당일인 내달 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행사장 내 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부스에서 가능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청년 창업가 8명 대상 보조사업비 정산 요령 등 교육

진안군이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5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3층 소교육장에서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8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청년들의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조사업의 집행 절차와 정산 요령, 사후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보조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아울러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창업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태권도원 활성화 협의체 구성

道-태권도진흥재단 맞손 “태권 시티 도약 기대”

무주군은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태권도원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권도원 운영을 위한 협조·소통 체계 구축,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및 예산확보 시너지 창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협의체는 앞으로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추진 △기관별 태권도 주요 현안 사업 정보 공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무주군, 나아가 전북의 핵심 자산”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군과 도, 재단이 같이 태권도원을



무주군은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발족했다고 밝혔다. <사진=무주군>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력을 높이게 된 만큼 태권 시티 도약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현실화하는 동력 또한 될 거라

고 확신한다”라며 “태권도원과 무주군에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생산유통 통합조직 정부 승인

품목별 생산·유통 연계 수급관리·가격 안정 기대

장수군은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철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원에 농산물 생산자 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 조직으로 농산물 생산의 일원화·규모화를 이루고 품목별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해 원활한 농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을 목표로 육성하는 조직이다.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과실류의 경우 총 취급액이 80억원 이상, 시설원예품목의 경우 60억원 이상과 전속취급률 50%이상의 요

건을 갖춰야 한다.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승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여조직인 장수농협, 장계농협, 장수사과원에농협과 같이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모든 요건을 충족해 군의 주요 재배 품목인 사과와 토마토가 전문품목으로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장수군은 공동선별비 지원,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신규자금 30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포함해 총 95억원의 자금을 1.5%의 저리

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지금은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운영자금에 활용되며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로 이어져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승인은 장수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 조직인 지역 내 농협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며 “승인을 계기로 장수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해 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5 임실 방문의 해’ 발로 뛰는 현장 홍보

찾아가는 현장 중심 소개 천만 관광객 시대 본격 시동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곳곳을 찾아가 임실 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임실 관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천만 관광 시대 개막을 위해 특색있는 사계절 축제와 함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작은 연초 설맞이 자매결연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열린 서울 강서구청 광장을 찾아가 임실 방문의 해 홍보물과 함께 다양한 기념품을 배부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임실의 매력을 전파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실군의 청정 농특산물과 힐링 관광지를 홍보해 잠재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냈으며,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와 SNS 구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와 SNS 구독 유도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4월 초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광



주 남구청을 찾아가 치즈 판매행사와 더불어 임실 방문의 해, 고향사랑기부, SNS 집중 홍보에 열을 올렸다.

남구청 직원들과 시민들은 직접 찾아와 임실의 매력을 몸소 홍보하는 모습에 큰 호응으로 화답했으며, 남구청 직원들 관광지를 홍보해 잠재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냈으며,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와 SNS 구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와 SNS 구독 유도에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오는 연말까지 임실N팻스타, 아쿠아페스티벌, 그리고 10월 명실상부 대

한민국 명품 치즈와 함께하는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 겨울 산타축제에서도 발로 뛰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연내 천만 관광을 실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찾아가는 임실 방문의 해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빼어난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고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남녀노소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토마토 빨나방 확산 차단 총력

진안군이 급증하고 있는 토마토 빨나방(학명 Tuta absolu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농가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외래 해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안군은 지역 내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 2종을 즉시 공급하고, 공동 살포를 통한 집중 방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마토 빨나방

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군의 결단으로, 농가들 역시 빠른 시일 내 방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토마토 빨나방은 잎, 줄기, 열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 해충으로, 방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농가에 신속하게 약제를 공급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1일에 방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

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집중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약제 살포에 나섰다.

노금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마토 빨나방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방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고, 군에서도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행사서 인구유치 총력

‘Y-FARM EXPO 2025’ 참가

진안군이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5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 참가해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과 정착 지원 방안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와 35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위킹홀리데이 IN 전북’ 신규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성공적인 귀농귀촌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진안군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 부스에서 △귀농귀촌 정책 소개 △주택·농지 정보 제공 △현직 정착 사례 공유 △1:1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함께 전시해 진안이 귀농귀촌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도시민들에게 진안군의 미래 가능성과 정착 여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정기적인 귀농귀촌 설명회와 더불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무주군은 오는 5월 14일까지 ‘2025년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임대차료, 홍보비,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채용·알선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무주군 내에서 창업이 가능한 자 등의 자격요건(무주군청 누리집 참고)을 갖춘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특화 교육(60시간)을 실시해 90% 이상 이수하면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최종 선발된 7명에게 창업 사업비 최대 1천2백만 원이 지원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팀 최애경 팀장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무주 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김정흠 임실군의원 “가구 LPG소형탱크 보급해야”



김정흠 임실군의원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임실·성수)이 지난 23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구 단위로 LPG소형저장

탱크를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에서 월평균 난방비가 도시지역보다 높아 농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농촌은 고령자, 취약계층, 노후주택 단열 문제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농촌에서의 에너지 이용료 상승과 보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가스 공급이 아닌 경제성과 물리적인 한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기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일부 농촌에 읍면·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흠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구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제안한다”며 “이는, 낮은 설치 비용으로 예산 효율성 증대, 간단한 설치 조건과 짧은 공사 기간, 빈집 발생 시 매몰비용 최소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 운영

임실군이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군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해 가정별 수도꼭지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 수질이 공급한 군민을 대상으로 임실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수질검사는 1차로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시 2차로 1차 항목을 포함한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심 민 군수는 “군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과학적인 정수처리로 엄격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가정에 제공되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 향상 및 음용 물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군 비봉면, 얼굴 없는 천사 지난해 이어 또 쌀 기부

완주군 비봉면에 얼굴 없는 천사가 또다시 찾아왔다. 25일 비봉면에 따르면 비봉면 직원들은 지난 24일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놓여있는 쌀 20kg 23포대를 발견했다.

쌀 포대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비봉면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쌀을 기부하게 됐다'는 쪽지가 남겨 있었다.

비봉면에는 지난해 겨울에도 얼굴 없는 천사가 20kg 쌀 21포를 놓고 가면서 관내 취약가구를 지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읍청년회·남부건설·인보건설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무주군 무주읍청년회와 ㈜남부건설, ㈜인보건설은 지난 25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각각 2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회원들과 함께 무주군을 찾은 무주읍청년회 박희환 대표는 "청년회 회원들 대부분이 무주에서 나고 자라 누구보다 후배 사랑이 깊다"라며 "앞으로도 후배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남부건설 박현수 대표는 "무주가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한 장학금이 아이들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 사브터맛집, 반디누리작업장 근로장애인 20명 식사 제공

무주군 사브터맛집이 장애인직업자활시설인 반디누리작업장과 함께 지역 내 근로 장애인(20명)들을 위한 행복 나눔 활동을 펼친다.

무주군에 따르면 매월 생일을 맞은 근로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9일 식사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브터맛집 이경옥, 이윤희 대표는 "2022년부터 매월 생일을 챙기며 마음을 함께 하는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보람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군산시 공무원들, 산불 피해 주민에 3,782만 원 성금

"안동 시민 일상 회복 바래"

군산시가 국제 교육도시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안동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했다.

25일 열린 성금 기탁식에서 군산시청 공직자 1,076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3,782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이번 성금은 최근 산불 피해로 안타깝게 삶의 터전을 잃어 고통받는 안동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군산시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안동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평소 교육이라는 공동의 가치로 함께 해 온 안동시에 힘든 일이 발생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어린이들, '탄소발자국 줄이기' 플로깅 활동

유천생태습지서 450명 참여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영미 포레나익산어린이집 원장)가 25일 유천생태습지 일원에서 20개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45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태습지 산책

로를 따라 자연을 체험하며 주변 쓰레기를 직접 줍고 정리했다.

또한 참여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 모은 우유팩을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하는 자원순환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아이들은 '우유팩이 화장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호기심을 보이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축협, 장애인 합동 결혼가정에 냉동고 선물

남원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한경석)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장애인 부부에게 지난 25일 냉동고(시가 800천 원)를 선물하며 부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오는 30일 (사)꿈드래장애인협회 전북지부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도내 12쌍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남원시에서는 37년 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 1쌍이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이 부부가 뒤늦은 결혼식을 한

다는 소식을 접한 남원축산업협동조합에서 부부를 초청해 결혼 선물을 증정했다.

한경석 조합장은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 두 분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축복을 기원한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남원축산업협동조합과 소속 단체들은 평소에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해훈 지에이이앤씨 대표, 경북 산불 피해 성금

군산시는 오식도동에 위치한 지에이이앤씨(주)(대표이사 이해훈)가 경북 안동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북지역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지역사회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피해 지역 복구 작업과 긴급 생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해훈 대표이사(사진)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 정읍시에 3년 연속 기부금 기탁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가 3년 연속 고향 사랑기부금을 정읍시에 전달하며 꾸준한 애郷심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철 회장을 비롯한 향우회원 10명이 참석해 3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매년 고향을 잊지 않고 정읍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정성을 모아왔다.

김영철 회장은 "앞으로도 향우회원들과 함께 정읍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읍 지사협·새마을부녀회, 저소득층 100세대에 밀반찬 지원

고창군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진용, 이하 고창읍지사협)가 지난 24일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순자)와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정성담은 밀반찬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정성껏 준비한 제육볶음, 장조림, 김치 등 영양가 높은 밀반찬이 각 가정에 전달됐다.

밀반찬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정성껏 직접 조리하여 준비했으며, 고창읍지사협 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전달하며 안부도 함께 살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운술 (유)청운기술단 대표, 부안군에 300만 원 기탁

부안군 상서면 출신으로 전주시에서 (유)청운기술단을 운영 중인 김운술 대표가 지난 24일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김운술 대표는 부안 출신 향우로, 토목건설 관련 각종 설계 및 용역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유)청운기술단을 이끌고 있으며, 고향과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기부는 부안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안=신상수 기자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칼, 도미는 구분
해서 사용하기



식재료, 주방기구는
깨끗이 세척



적정 온도로
음식을 보관하기

〈一事一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이 매우 수상쩍다

김관춘
논설위원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례 없이 ‘신속 심리’ 절차로 집행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어 곧바로 속행기일 지정에 이르기까지, 광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절차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지켜줘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대법원인가. 계엄 직후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갔을 때 대법원은 긴 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판사를 ‘수거대상’으로 지목한 노상원 수첩이 공개됐을 때도,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파괴했을 때도, 지귀원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재판특례를 주었을 때도 대법원은 단 한마디 논평조차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정도라면 의구심을 살만하지 않는가.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그 독립과 권위는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실효를 발휘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형사 재판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은 법정 포토라인을 거쳐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엄정한 재판 절차를 밟았다. 이에 비해 지귀원이 이끄는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부는 지하통로

출입 허용, 사진 촬영 제한, 피고인 착석 위치 후방 배치 등 일련의 ‘특권 대우’를 허용해 국민적 불신의 중심이 되었다.

이 같은 불신은 이재명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2심 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내린 무죄 판결로, 범리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사실심’적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처 신속 심리로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알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례적 절차를 통해 빠르게 강행하는 재판은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로,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그날 오후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재판부(소부)가 먼저 사건을 심리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전원합의체 심리는 10일 전에 미리 지정·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 연구와 보고 절차도 있어야 한다.

이번 절차 진행은 해외 사례와도 대비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대통령 형사 사건을 인계받을 경우, 통상 수개월에 걸친 사전 심리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친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연방대법원은 일차 심리 기간만 180일 이상을 소요했다. 영국 대법원 역시 주요 정치인 재판을 다룰 때 평균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

이처럼 주요 민주국가 사법부는 ‘속도’보다 ‘신중함’을 택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그런 절차가 전부 생략되거나 무시되었다.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를 강조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절차를 생략하고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원합의체를 열었다. 이는 재판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 조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탄핵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범조문뿐 아니라 적법절차 같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어긴 경우도 포함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 절차를 왜곡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에게 적용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매우 엄중하다.

이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며, 탄핵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이례적 심리 절차가 과연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인가. 사법부가 보여주는 특정인의 특별대우와 사상 조우의 신속 절차에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한가?”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엄중하다. 법관은 그 어떤 정치적 의풍에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과 양심을 지켜야 하며 대법원장은 이를 보장할 마지막 수호자다. 그러나 그 보루가 먼저 금이 간다면 사법부 독립은 단지 사법부의 독선일 뿐이다.

조속한 심리 집행을 이재명 의원의 혐의 입증에 위해 절실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속도를 앞세운 절차 운영이야말로 ‘사법적 편향’을 의심케 하는 단초가 된다. 대법원은 즉각 신속 심리 절차를 재고하고, 사건의 중대성·법리적 사안·절차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빠른 판결’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설 때 비로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대법원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본연의 역할을 상기해야 한다. 오랏나무 아래에서 갇힌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사설

전북 대선 공약, 재탕 아닌 미래를 말해야

63 장미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 역시 주말에 호남을 찾아 각종 지역 공약을 제시했지만 전북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함이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거나 지역 정치권에서 수차례 공언했던 사업의 연장선에 머무르고 있어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전북 공약은 분명 정교함과 구체성 면에서 타 후보보다 앞선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전략을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새만금의 에너지 산업, 전주의 금융 중심지화, 군산조선소 재가동,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남원의 국립의대 설립 등은 지역 현안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시도되었거나, 전북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것들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실패나 지연을 단순히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수준으로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업그레이드된 공약’이다. 예컨대, 전주 제3금융중심지 구상은 단지 명목상의 지위 확보를 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운용, 녹색금융, 사회적 금융 등 새로운 금융 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인재 육성 전략까지 병행돼야 비로소 실현 가능성이 높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단순한 재개 수준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등 미래 조선업으로의 전환을 포함해야 한다.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새만금 개발은 이제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소 검토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동반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K-푸드 수출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립의대 설립 등도 지역 고유의 자산과 인력을 연결하고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구체적 방안이 뒤따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은 더 이상 ‘호남 프리미엄’만으로는 감동하지 않는다. 참신하고 현실적이며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원한다. 도민들은 감성적 호소보다 실질적 변화에 목마르다. 각 대선 후보는 전북을 표심의 공간이 아닌, 미래의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이곳에서 실현되는 공약이야말로 진짜 국정 운영 능력을 입증할 무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구호로만 존재하는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전북이 스스로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전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그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추진력을 갖춘 후보만이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대선 공약은 더 이상 과거의 재탕이 아니라, 전북의 내일을 위한 참신한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문화재열전



백장암 소장 범종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범종
-지정일 - 2007년 1월 1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남원시 백장길 66
백암장

▲오늘의시

편지 / 송기원

어머니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려 하고 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뜨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일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죽는 새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슬에 젖은 발자욱 소리가
지금 산야를 울립니다.
어머니
이름 없는 산야의
이름 없는 무덤들 사이에서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시들은 잠조들 무성한

무덤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뜨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눈부신 새벽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그토록 긴 밤을 떠돌던
많은 낮들과 함께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

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대표전화 282-9601		인쇄인 김은주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완산지국 010-8642-6502
연우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063)282-9600~3



ESG 전국 최고 성적 받은 완주군!

지속가능한 완주의 내일을 향해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완주군이 사회적책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포함됐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약자로,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이 고려해야 할 핵심 3요소를 뜻한다.

완주군은 ESG가 주민 삶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회적책임 분야 전국 1위·종합 A등급 차별화 인구정책 시행 10만 완주 목전 인구가족과 신설·신혼부부 축하금 등

◆ESG 두각 나타내는 완주

완주군은 ESG라는 용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결과들이 ESG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이 지난 18일 수상한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은 한국ESG평가원, ESG경제,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RSA)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것으로 지난 2년간의 전국 지자체 지표를 산출해 수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 결과 완주군은 종합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 S등급을 받으며 전국 1등을 달성했으며,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복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주군의 ESG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도 사회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부지표 분석에서 △지역안전 등급 △스트레스 및 건강수준 인지율 △흡연율 △문화기반 시설 수 △사회분야 관련 각종 포상 가점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분야 전국 1등 비결

ESG에서 중요시하는 사회(S)는 기관이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완주군은 차별화된 완주형 인구정책을 시행해 10만 완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으로 사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인구가족과를 신설했으며, 인구정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전입세대에 로컬푸드 꾸러미,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19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는 세대당 5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거단지 신설, 기업유치, 교육·복지 분야 투자 등의 노력으로 2023년 전국 군단위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다.

일자리 정책도 활발하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1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이 이를 방증한다.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팀을 신설했으며, 도내 최초로 완주산단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작업복 세탁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단 3곳을 선정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포함되면서 저력을 보여줬다. 문화선도산단 선정으로 조성된 30년이 넘은 완주산업단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인근의 농공단지, 과학산단, 테크노밸리 1.2단계, 2023년 3월 선정된 50만 평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신·구 조화로 완주군은 더욱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완주=김명곤기자



〈인터뷰〉 유희태 완주군수

“ESG, 지자체서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군 단위 지자체로 유일하게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뜻깊은 결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유희태 군수는 “ESG는 지자체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며, “ESG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군정 전반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태 군수는 강점을 가진 사회분야를 비롯해 환경, 지배구조 등에서의 도약

도 예고했다. 사회분야는 사회적경제, 환경은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확산, 지배구조는 청렴문화 확대 등이다.

유희태 군수는 “취임 초부터 환경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반발이 심했던 양돈장 부지를 매입해 갈등을 일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주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체계를 강화했다”고도 말했다.

실제 완주군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도보다 1단계 더 상승한 종합청렴도 상위권인 2등급을 달성했다.

당시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4.2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청렴제도도·노력도 부문 모두 다른 지자체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희태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행정,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군정 운영을 통해 ESG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